

## 건설 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력 강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와 변혁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의 급변함을 느끼게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원자력계에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마련되는 등 원자력 산업 발전의 토대가 구축된 한 해였다.

이러한 격동기에서도 우리 동아건설산업(주)는 원자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해외에서 리비아 국의 대수로 3단계 공사(51억달러 규모)를 수주함으로써, 명실 공히 한국 건설 기술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우리 동아건설산업(주)는 현재 올진 원자력발전소 3·4호기 토건 공사를 순조롭게 진척시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였으며, 기전 공사는 97년 3월 1일 3호기 상온 수압 시험(CHT cold hydro test)을 앞두고 각 시스템별 턴오버(trunover)에 진력하고

있다.

한국 표준형 경수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 기술을 토대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을 수주토록 노력하며, 민족적 사업의 대열에 동참하여 우리의 기술력을 북한은 물론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완벽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축적 및 신공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제 새해부터는 한국의 건설 시장이 개방된다.

그동안 우리의 건설 산업이 그 규모면에서 과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지난 30여년간 고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국내 총생산의 20%를 상회하는 규모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 복지 수요 증대, 안전 시공, 관리 욕구 증대 등으로 그 규모 및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 시장이 97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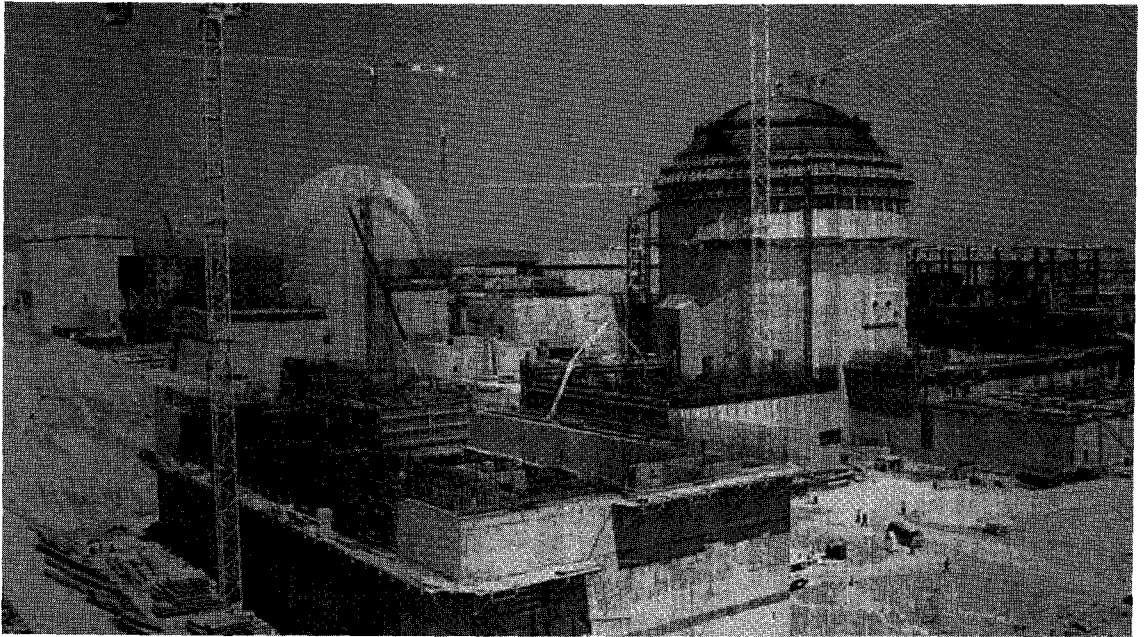
협정 발효에 따라, 정부조달시장사에 대한 개방이라는 엄청난 파도의 변화가 곧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누구도 감히 그 이후가 어떻게 전개될 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 원자력계에도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원전 건설 분야에서 이미 영광 5·6호기 건설부터 국내 미경험 업체의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향후 올진 5·6호기 건설 공사 수주 경쟁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기존 원전 건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외에 신규 자격 업체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전 건설 공사 입찰 사상 가장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되리라고 전망한다.

또한 새해부터는 외국 업체까지 가세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의 원전 건설 공사 수주는 가히 불꽃튀는 수주



동아건설산업(주)가 건설하고 있는 울진 원자력 3·4호기의 모습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는 정부에서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하였지만, 우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해가 거듭될수록 발주자의 건설 공사비는 축소 조정이 되고 있으며, 또한 기능 인력의 노임은 현실을 무시한 채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기능 인력의 생산성은 반비례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3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기능 인력은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인해 노임 상승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

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시공사도 내부적으로 신기술·신공법을 개발하며 선진 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등 원가를 절감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최고의 품질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공기 내 준공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 원전 건설 시장을 사수하기 위한 원전 건설 시공사의 특화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원전 건설 협력업체 육성 및 기능 인력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소 이율 배반적인 논리 전개이긴 하나 개방되는 건설 시장에 대비하면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중국 및 동남아 원전 건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도, 전문화된 원전 시공사의 소수 정예화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새해에도 우리 동아건설산업(주)는 국내 원전 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향하면서도 국내 시장이 잠식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내실에 역점을 둘 것이며, 넓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알차고 뜻있는 한 해를 맞이할 것이다.